

## 26 支那の國土計劃 중국의 국토계획

1942년 / 孫文(손문) / 292면 / 02.10-08 손37지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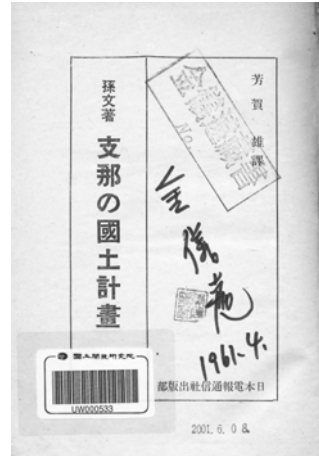
1921년에 孫文(손문)이 작성한 중국의 국토계획으로, 1942년 5월에 일본이 292면의 번역판(역자 芳賀雄)으로 낸 것이다. 1961년 4월에 인사동 통문관(通文館)에서 구입했다.

중화민국 51년(1962)에 중국문화연구총서로서 張基昫(장기윤)이 지은 228면의 『建國方略研究(건국방략연구)』가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국토계획자료 23호로 발간된 『建國方略(共榮大計)』은 필자가 국토계획과장 때(1967) 직원 교육용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1968. 12. 12).

모택동(毛澤東) 이전의 이른바 중국의 국부(國父)로 불리던 손문은 이 계획의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나는 중국개발계획에 착수했다. 광대한 국토와 4억에 달하는 인구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개발하는 것만이 중국인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하여… 그래서 나는 이 계획을 건국방략(建國方略), 또는 공영대계(共榮大計)라 불렀다.”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요동 반도, 즉 지금의 여대(旅大, 여순-대련)에 세계적인 규모의 부동항을 건설하여 북방대항(北方大港)이라 한다. 둘째로 지금의 상해 남쪽 항주만(杭州灣)에도 세계적인 항만을 건설하여 동방대항(東方大港)이라 부른다. 셋째로 지금의 광둥(廣東)항을 상하이와 북방대항 수준의 항만으로 건설한다. 이리하여 이들 대항(大港)을 기점으로 오지(奧地)로 대규모 철도를 건설한다. 또한 중국은 습지가 많은데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葦)를 제지(製紙) 원료로 해서 대대적인 제지공업을 일으키는 한편 고기 대용품으로 콩에 의한 질소식량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서 특히 특징적인 것은 대규모 항만건설을 비롯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10만 마일에 달하는 철도건설 계획, 그리고 황하(黃河)와 양자강(楊子江=長江)을 연결하는 대규모의 운하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100만 마일에 달하는 포장도로의 건설도 계획에 들어 있다.

지금 중국은 공산체제하의 ‘삼선계획(三線計劃)’이란 국토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잘 분석해 보면 손문의 ‘공영대계’와 같은 뿌리로 볼 수 있다. 비록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지만 한 민족이 자기 국토를 보는 눈은 이념과 체제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